

韓·日·印 주춤할 때 ‘중화 랠리’ “단기적 차익실현 매물 주의해야”

FOMO 현상 일어난 中 투자 열기
中 8% 상승, 韓·日·印 증시 모두 ↓
국경절 연휴 후 소비·경제지표 주목
中 경기 부양책 실제효과 시장 관전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중국 주요 지수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 여파로 주변 아시아 국가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의 실제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휴장한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선전증시는 국경절 연휴 전 일 동안 거래가 불가하다.

5거래일이나 거래를 멈추는 중국 증시 일정 탓에 국경절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에는 매수세가 대거 몰렸다. 선전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종합지수는 8.06% 올랐고, 중국 우량 기업 300곳의 주가를 추종하는 CSI300지수도 전일보다 8.48% 올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하 등 대규모 경기 유동성 공급 계획을, 지난달 30일에는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 5거래일 동안 선전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종합지수는 13.98%, CSI300지수는 17.37% 급등했다. 스콧 루브너 골드만삭스 기술적 전략가는 “지금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 강세에 ‘FOMO(포모·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행태를 보인다”며 중국을 향한 투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봤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증시 상승’ 이미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등에 업은 중국 증시와 국가별 특수한 상황이 겹치자, 중국 외 주요 아시아권 증시는 지난달 30일 일제히 떨어진 뒤 쉽게 그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일 개장한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약 2% 가량 상승했지만, 지난달 30일 4.80% 떨어진 주가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과세 강화’ 기조를 가진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선된 영향이 컸다. 시장에서는 이시바 총재의 경제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본 증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양대 증시인 센섹스 30지수와 니프티50지수가 지난달 30일 각 1.49%, 1.41% 하락했다. 9월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 이후 상승세를 이어 오던 인도 증시는 인도 내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한 뒤 중국 시장으로 투심이 옮겨간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장한 국내 증시는 지난달 30일 코스피가 2.

13% 하락하며 2600선 아래인 2593.27에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이탈과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 등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 증시가 상승한 만큼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결정지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경제지표들보다는 연휴 동안 나올 데이터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현 KB증권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향후 소비경기 회복의 정도가 증시 반등 진폭과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경절 연휴 소비 데이터, 10월 제조업 PMI, 10월 CPI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투세 유예 ‘솔솔’... 개미, 인버스 베팅

개인투자자, 인버스 1192억 순매수
기관, 레버리지 2091억 투자 집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도 뚜렷한 증시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유예’로 가다가 잡히자, 투자자들의 ‘코스피 인버스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지난달 23일~30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장지수펀드(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1192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대형주가 코스피 200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국내 대표 인버스 ETF로 지수 하락분의 약 두 배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150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역으로 추정하는 ‘KODEX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308억원)와 ‘KODEX 인버스’(178억원)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KODEX 레버리지’(2091억원)였다. KODEX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을 2배 추종해 코스피 지수

가 상승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외국인은 ‘TIGER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46억원가량 매수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기관과 외국인의 ETF 순매수 규모 10위권에 레버리지 상품이 각 4개씩 포함된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규모 10위권에는 인버스 상품이 5개나 이름을 올렸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6.51p(2.13%) 하락한 2593.27로 장을 마쳤다.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밸류업 지수도 28.6p(2.8%) 내린 992.13을 기록해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확답을 내놓지 않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유예’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를)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서학개미’ 美 배당주 사고, 기술주는 팔고

해외주식 Click

금리인하에 美 증시 투자전략 변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서학개미들은 금리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배당주를 사들이고 있는 한편 매수우위를 보였던 기술주를 순매도하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주(9월 17~23일) 슈왓 미국 배당주 ETF(SCHD)를 2768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SCHD는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로 장기간 고배당성향을 유지하는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배당주는 금리 인하 시기에 기업가치(밸류에이션)가 개선되며 주가 시세차익과 이자소득(배당금)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진다. 서학개미들은 최

근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지만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들로 구성된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따르는 디렉스온 테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3배 ETF(TMF),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ETF 등을 각각 2311만달러, 1995만달러 매입했다.

그동안 서학개미들이 관심 보였던 테슬라를 비롯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기술주들은 순매수 상위종목에서 벗어났다. 특히 서학개미는 이 기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각각 6446만달러, 3369만달러 팔아치웠다. 이는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주가 강세가 이어지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

‘좀비 ETF’ 급증... 올해만 35개 상장폐지

ETF 자산 160조 돌파에도 상폐 속출
상폐주의 67개... 급성장 속 내실 문제
“심사 기준 개편으로 질적 성장 도모”

올해 순자산규모 160조원을 돌파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성장세에 비해 내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규모와 관리 상품 수가 늘어난 동시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좀비 ETF’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된 ETF 수는 35개로 지난해 14개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장폐지된 ETF 수는 2020년 29개, 2021년 25개로 유지되다가 2022년에 6개로 잠시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품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ETF가 다음 반기 말에도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ETF 시장은 올해 총자산이 160조원을 넘기는 등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신규 상품들이 쏟아지자 시장성이 떨어지는 ETF들도 다수 생기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8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운용되고 있는 ETF는 총 893개로, 지난해 말(812개)보다 81개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가 846개사임을 고려했을 때, ETF 상품 수가 상장 기업 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각 연도말 기준 ETF 수는 2020년 468개, 2021년 533개, 2022년 666개, 2023년 81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재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MSCI퀵리티’ ‘KODEX 최소변동성’ 등이다. 이외에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른바 ‘좀비 ETF’가 상당

수 존재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순자산 50억원 미만 ETF는 67개로, 국내 상장된 ETF의 7.5%를 차지한다. 이 중 28개는 평균거래량(90일) 1000주를 넘기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면 굳이 유사한 상품들이 줄을 잇기 시작하고, 운용사 간 ETF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각 운용사마다 관리하는 ETF 개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26일 기준 주요 운용사 26개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ETF 상품의 평균은 약 34.4개다. 가장 많은 수의 ETF를 관리하고 있는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197개)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193개), KB자산운용(112개)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내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ETF 상장 심사 요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한 질적 성장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